
濟州道 初·中·高 教員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高 時 弘

指導教授 高 性 俊

1986年 月 日

高時弘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 審 _____ ①

副 審 _____ ①

副 審 _____ ①

1986年 月 日

目 次

I. 緒 論	4
1. 問題의 提起	4
2. 調查研究의 目的 및 範圍	7
3. 調查研究의 制限點	8
II. 調查研究의 方法	9
1. 測定道具	9
2. 標 集	9
3. 資料處理	12
III. 統一意識 構造 論議 吳 分析	13
1. 戰爭可能性	13
2. 對北韓 認識	15
3. 南北會議	18
4. 統一方案	28
5. 統一展望	33
IV. 結 論	40
1. 要 約	40
2. 提 言	42
參考文獻	44
附錄： 設問紙	35
英文抄錄	52

表 目 次

表 1. 設問紙 配付 및 回收狀況	10
表 2. 基礎 統計資料	10
表 3. 南北韓 戰爭 可能性	13
表 4. 戰爭時 行動 樣態	14
表 5. 戰爭時 性別 行動 樣態	14
表 6. 南北韓 軍事力 比較	15
表 7. 對北韓 認識: 自由聯想	16
表 8. 對北韓 認識: 心理的 距離	17
表 9. 對北韓 認識: 國際競技	18
表 10. 解放前後의 強大國 協商	19
表 11. “7.4 共同聲明” 以前의 協商事例	20
表 12. 南北對話 展開圖	22
表 13. 南北會談 經過	23
表 14. 南北韓 各種會談에 對한 期待	26
表 15. 南北韓 最高當局者 會談 成就	26
表 16. '88 올림픽 北韓 參加 與否	27
表 17. 水災物資 受領	28
表 18. 統一方案	28
表 19. 韓半島 統一에 對한 南北의 基本立場	29
表 20. 韓國의 統一方案	30
表 21. 北韓의 統一方案	31
表 22. 南北韓 統一方案의 比較	32
表 23. 統一時期에 對한 展望	33
表 24. 統一의 理念과 體制	34
表 25. 統一努力의 評價	35

表 26. 統一努力의 評價(高學歷)	35
表 27. 統一沮害要因	36
表 28. 統一沮害要因(學歷別 比較)	37
表 29. 駐韓美軍의 撤軍 時期	38
表 30. 韓·日軍事 協力에 對한 見解	39

I . 緒 論

1 . 問題의 提起

解放 41年, 分斷 41年, 이 韓半島에 不惑의 年輪을 쌓아가고 있다. 해방의 환희를 뒤전으로 하면서 分斷의 苦痛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恨을 안고 살고 있다. 그 過程에서 南北韓 關係에 對하여는 습관적으로 지니게 된 도식화된 고정관념인 極端的 反共思想과 幻想的 教條主義에 더하여 無關心의 심리가 뿌리내려 있다.¹⁾

國土分斷은 民族의 分裂을 낳았고, 그것은 韓半島에 철저한 障壁化와 함께 敵對化 不信化를 초래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相互和解를 모색하는 극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 民族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課題는 平和를 이루고 統一을 成就하는 일이다.

統一問題를 진지하게 論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큰 前提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統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意味 자체가 계속 변화한다는 事實에 對한 認定이고, 다른 하나는 統一이란 하나의 政權의 政策에 맡겨 둘 수 없는 超政權的인 民族的 課題이므로 政權 性格에 구애받음이 없이 6천만 全 韓國民族社會 成員의 運命과의 關聯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²⁾

南北韓 關係에 對해서 長期的으로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單一民族으로 統一에 대한 意志가 강열하고 千年이상 統一國家의 傳統을 지닌 歷史的 經驗이 있기에 統一에의 期待와 可能性을 보게 되는 것이다. 勿論 分斷은 냉혹한 現實이고 앞으로 平和統一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긴 過程과 持續的 努力이 必要함을 깊이 認識할 수 밖에 없다.

分斷은 歷史的 概念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第1次世界大戰의 처리과정에서 또는 그 뒤의 冷戰의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國家이어야 할 것이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狀態”라고 볼 수 있다.³⁾ 이것은 하나의 生活圈속에 살던 또는 살아야

1) 李洪九外,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博英社, 1984). pp 11~14

2) 李商禹 “統一視覺에서 본 民主發展”, 梁好民外 編, 民族統一論의 展開(形成社, 1982) p.17

3) 金俊熙, 分斷國家理論에서 본 韓半島의 將來, 梁好民外 編, 民族統一論의 展開(形成社, 1982) p.134.

할 사람들(民族 또는 國民)이 다른 生活圈으로 나누어져 있는 狀態”로 規定할 수도 있다.⁴⁾

그렇다면 우리 韓半島의 경우 어떤 狀態가 되면 統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韓半島에 主權을 가진 國家가 하나만 있어야 한다. 國際社會에서 우리 民族 國家를 代表하는 政府가 하나여야 하고 國內에서 最高統治權을 行使하는 政府도 하나여야 하는 單一主權國家여야 한다. 둘째는 이 한반도에 居住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의 國民을 形成하고, 主權行使에 있어서도 居住地域에 關係없이 같은 權限을 갖게 되는 이른바 國民統合(또는 民族統合)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國民은 全領土 안에서 居住移轉 및 通行의 自由를 갖는 生活空間의 統一이 達成되어야 한다. 넷째로 統一된 國家는 單一法體系와 單一國家를 保有하는 法秩序와 軍隊의 統合이 이루어져야 한다.⁵⁾

그러면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 民族 成員 모두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줄기찬 努力을 끝없이 展開해야 한다. 즉 全國民의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統一問題에 對한 自由스러운 討論과 의사소통의 活性化를 통하여 平和統一成就의 方法을 모색하고 意見을 수렴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막연하게 統一을 願한다는 것이 곧 그들이 統一에 對한 關心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分斷 41年이 가져 온 큰 不作用의 하나는 民族統一에 對한 대부분 國民들의 責任意識의 麻痺와 時代精神의 拋棄를 들 수 있다. 北韓共產集團의 武力에 의한 統一企圖(6.25 南侵)에 따른 동족상쟁의 과정을 거치고⁶⁾, 비록 戰雲이 감도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休戰以後 30 余年에 걸친 戰爭抑制의 成功은 分斷과 對決을 習慣化하였고 이러한 小康狀態속에서 統一에 對한 관심은 日常生活의 壓力에 밀려 점차 의식의 외곽으로 밀리고 만 것이다. 統一에 對한 國民의 無關心은 統一成就에 必要的인 國民의 潛在的인 能力을 弱화시킴으로써 統一을 지연시킨다는 本質的인 어려움을 자아내는 한편 民族의 運命을 他律에 맡기는 위험한 습관을 만연시킬수 있었다. 分斷이 他律의 結果이기에 統一도 他律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이상한 論理, 統一은 狀況의 變化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지 우리의 努力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諦念등이 바로 그 위

4) 閔丙天, 民族統一論(고려원, 1985). p.11.

5) 國土統一院 統一研究所, 民主統一論(1985). p.15.

6) 金俊燁, 南北韓 統一問題와 그 周邊(一潮閣, 1979). p.83.

힘한 습관의 內容인 것이다.”⁷⁾

統一에 대한 국민적 無關心은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 즉 盲目的 反共主義者, 幻想的 教條主義 信奉者, 그리고 極小數의 權力엘리트에게 民族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時代錯誤的인 統一觀의 만연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될 可能性도 있다.

더우기 現在의 時點에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民族的 羞恥感이 깃들인 反省을 피할 수 없다. 韓半島內에서는 勿論이거니와 世界到處에서 각종 매체를 總動員하여 서로 비방, 비난하고 심지어 暴行, 殺傷을 자행하는 民族이라고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해도 有口無言일 수 밖에 없다. 國民의 福祉를 위하여 모든 자원이 投入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이 아닌 同族의 侵略에 對備하기 위하여 막대한 軍事費를 支出하고 있는 우리를 우매하고 딱한 民族이라 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民族的 어려움의 責任이 전적으로 北韓에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姿勢에서 벗어나 分斷으로 말미암은 민족의 시련을 차분하게 극복하여 나가는 적극적 자세를 확립하여 統一課業의 주도권을 행사하여야 될 역사적 시기임을 명념해야 하겠다.

分斷 41年의 民族史는 否定的 側面만을 내포한 것은 아니다. 南北 두 體制 사이의 격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自由民主主義的 實驗과 社會主義的 實驗은 南과 北에서 각기 그 나름대로의 成果를 이룩했다. 따라서 個別的으로 이룩한 民族的 成就라는 肯定的 側面을 부각시켜 評價하고 그것을 갈등해소의 발판으로 活用하여 새로운 統一觀 定立이 모색됨직도 하다. 이것은 우리 韓國이 南北關係에서 지니된 精神的 및 物質的 여유와 어른스러움을 根據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第二期 南北對話時代”에 접어들면서 南北韓間의 對話通路인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國會會談 및 體育會談 등은 統一을 爲한 南北韓間의 진지한 努力의 일환으로 評價하고 그 結實을 위하여 국민 모두의 슬기를 모아야 한다.

1980年代에 이르러 政府의 對北韓 認識도 현격히 달라졌고 이에 따라 對北韓 政策도 변천을 거듭하면서 柔軟性을 內包하고 있다. 近來에 統一問題에 關한 한 國民의 合意를 基礎로 한 政策을 樹立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와 關連 統一에 關한 國民의 意思表示가 活潑해지고 있다. 國民의 幅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政策

7) 李洪九外, 前揭書. p.13

을立案·施行하려면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의對北韓 인식과統一意識의變化를繼續 추적해 나가는 조사작업이정례적·체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2. 調査研究의 目的 및 範圍

1984年 5月 訪韓한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來韓辭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統一을祈願하였다.⁸⁾

“한 世代가 넘도록 아직도 悲劇的으로 分斷되어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祖國이對 決과 戰爭으로서가 아니라 對話와 相互信賴와 兄弟愛로서 도로 한 家族으로 統一되어 不信과 憎惡와 武力만을 점점 더 믿는 이 世上의 거짓됨을 드러내 주시기를 祈願합니다.”

이 간결한 표현속에는 우리 統一問題의 本質과 南北韓의 統一接近 姿勢의 根本的 差異點, 나아가서는 우리 統一의 世界史的 的의까지도 잘 함축해 주고 있다. 대결과 戰爭의 方法으로서가 아니라 對話와 相互信賴와 兄弟愛로써 不信과 憎惡의 武力을 排除할 수 있는 基礎作業은 知識人 特히 各級學校에 근무하고 있는 敎員들의 第1次的 責任에 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敎員社會에 있어서 平和統一에의 寄與 方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탐색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敎員 個人에 있어서의 統一念願에 따른 實踐指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더하여 第2세 국민인 아동·학생들에게 平和統一의 當爲性과 그 必要性을 직접 敎育하고 이에 대비하는 努力을 경주토록 指導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敎員의 統一意識 構造를 把握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에 비견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식·무의식적으로 심어져 가고 있는 極端的 反共思想, 幻想的 敎條主義, 無關心의 심리를 柔軟한 自由民主主義의 思考로, 合理的이고 科學的이며 實踐的 立場으로, 또 積極的 對應態勢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判斷에 서이다.

濟州道の 경우 이러한 면에서의 意圖的이고 體系的인 調査活動이 아직은 미흡한 狀

8) 統一研究所, 前掲書. p.16

態⁹⁾임을 認識하고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 濟州道 初·中·高 教員들의 統一 意識구조를 조사 연구하게 된 것이다.

研究의 範圍에 있어서는 濟州道內 全體教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시간의·물적·인적 제한을 감안하여 全道 初·中·高 在職 教員의 약 50%에 해당하는 人員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濟州道 教員의 統一意識을 全國 추세와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李相禹 教授¹⁰⁾가 1985 年度에 發表한 “韓國人的 統一意識變化추세” 조사 내용에 맞는 것을 정선 選擇 시행하게 되었다.

3. 調查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의 制限點으로 다음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本 研究는 附錄에 提示된 바와 같이 設問紙에 依하여 推進 遂行 되었다. 즉 各級學校 教員에게 設問紙를 配付하고 配付받은 教員의 自由스런 意見을 表示하도록 要請되었다. 그러나 教員의 身分이 公務員이라는 전제가 있음으로 해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이 제시되는 데에 약간 이 제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設問紙 配付過程에서 設問內容을 說明할 수 있는 對話機會가 全無함으로 因해 設問의 眞意를 오해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설문대상이 初·中·高에 亘해 있고, 教科目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문내용에는 극히 상식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끝으로 本 研究는 結果論議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資料의 방대로 인해 학교급별·성별 연령·학력·경력·종교·거주지·직급 등으로 일일이 分析·評價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임을 필자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9) 金致洪, 濟州道 中·高等學生들의 統一安保 意識에 關한 調查研究, 濟州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1983). pp.22~24

10) 李相禹, 韓國人的 統一意識變化추세(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 pp.1~20

Ⅱ. 調查研究의 方法

本 研究目的을 爲한 研究方法으로는 文獻研究와 記述的 調查研究方法을 並行하였다. 文獻研究를 通해서는 全體 韓國人의 統一意識 現況을 살펴보고 本 研究의 結果와 比較 分析하였으며, 記述的 調查研究에 의해서는 設問紙를 通하여 나타난 反應을 中心으로 道內 初·中·高校 教員들의 統一安保意識을 把握하고자 하였다.

以上과 같은 研究方法에 對한 道具, 標集 및 資料處理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測定道具

本 研究目的을 위해서 全體韓國人의 統一意識 現況에 對한 先行研究를 參考하여 測定道具를 製作하였다.

設問紙 問項을 應答者의 背景에 關한 問項과 意識構造에 關한 內容問項으로 크게 區分하여 製作하였으며 數回의 分析과 檢討段階를 거쳐 最終적으로 29個 問項을 選定 하였다.

統一安保意識에 對한 內容問項은 調查對象者가 教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閉鎖式 質問型을 基本的으로 構成한 후 開放式 質問型을 添加하였다.

2. 標 集

濟州道內 全教員의 母集團을 代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國民學校 35個校, 中學校 31個校, 高等學校 27個校를 對象으로 標集을 實施하였으며 初·中·高 教員의 意見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國民學校 教員 630名, 中學校 教員 615名, 高等學校 教員 765名 等 總 2,01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設問紙 實施方法을 研究者가 選定된 學校에 直接 찾아가서 校長先生님에게 本 研究의 目的, 趣旨 및 質問紙 內容을 說明하고 協助를 얻어 實施한 후 回收하였다.

標集은 1986年 9月 25日 부터 10月 10日 사이에 實施 回收하였다.

設問紙의 實施結果는 〈表 1〉에 提示된 바와 같으며 回收된 數는 1,872名이었다. 標集된 1,872名은 設問紙의 全問項에 反應을 하지 않은 것이 除外된 實際 分析 對象으로 取扱된 標集數를 말한다.

表 1. 設問紙 配付 및 回收狀況

1986.9.25~10.10

구분 학교급별	제주도내 학교, 교원수	실시대상		회수결과		표집율 (%)
		학교수	배부수	학교수	회수량 (회수율)	
국민학교	113교 1,758명	35	630	35	578 (91.7)	
중학교	39교 1,021명	31	615	31	589 (95.8)	
고등학교	27교 1,075명	27	765	27	705 (92.2)	
합계	179교 3,854명	93	2,010	93	1,872 (93.1)	

表 2. 基礎 統計資料

변인	구분	남	여	계
소속학교	초	283(15.12)	295(15.76)	578(30.88)
	중	385(20.57)	204(10.90)	589(31.46)
	고	609(32.53)	96(5.13)	705(37.66)
	계	1,277(68.22)	595(31.78)	1,872(100.00)
연령	20대	146(7.80)	324(17.31)	470(25.11)
	30대	514(27.06)	206(11.00)	720(38.46)
	40대	413(22.06)	53(2.83)	466(24.89)
	50대	187(9.99)	11(0.59)	198(10.58)
	60대	17(0.91)	1(0.05)	18(0.96)
	계	1,277(68.22)	595(31.78)	1,872(100.00)
학력	고졸	54(2.88)	28(1.50)	82(4.38)
	초대졸	160(8.55)	238(12.71)	398(21.26)
	대학졸	890(47.54)	317(16.93)	1,207(64.48)
	대학원졸	156(8.33)	8(0.43)	164(8.76)
	기타	17(0.91)	4(0.21)	21(1.12)

변 인	구 분	남	여	계
교직경력	계	1,277(68.22)	595(31.78)	1,872(100.00)
	~ 5 년	231(12.34)	262(14.00)	493(26.34)
	~ 10 년	288(15.38)	175(9.35)	463(24.73)
	~ 15 년	251(13.41)	75(4.01)	326(17.41)
	~ 20 년	240(12.82)	50(2.67)	290(15.49)
	~ 25 년	151(8.07)	23(1.23)	174(9.29)
	~ 30 년	66(3.53)	7(0.37)	73(3.90)
	30 년 ~	50(2.67)	3(0.16)	53(2.83)
	계	1,277(68.22)	595(31.78)	1,872(100.00)
종 교	불 교	435(23.24)	108(5.77)	543(29.01)
	천 주 교	117(6.25)	128(6.84)	245(13.09)
	기 독 교	107(5.72)	97(5.18)	204(10.90)
	기 타 종 교	15(0.80)	4(0.21)	19(1.01)
	무 종 교	603(32.21)	258(13.78)	861(45.99)
	계	1,277(68.22)	595(31.78)	1,872(100.00)
과 목	국 어	156(12.06)	60(4.64)	216(16.69)
	외 국 어	119(9.20)	47(3.63)	166(12.83)
	수 학	133(10.28)	19(1.47)	152(11.75)
	사 회	131(10.12)	35(2.70)	166(12.83)
	과 학	119(9.20)	22(1.70)	141(10.90)
	윤 리	59(4.56)	15(1.16)	74(5.72)
	예 체 능	90(6.96)	37(2.86)	127(9.81)
	가정·실업	149(11.51)	58(4.48)	207(16.00)
	기타·무응답	38(2.94)	7(0.54)	45(3.48)
	계	994(76.82)	300(23.18)	1,294(100.00)

그리고 〈表 2〉 基礎統計資料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應答者의 年令別 分布는 20代가 470명(25.1%), 30代가 720(38.5%), 40代는 466名(24.9%), 50代는 198

명(10.6%)이고 60代는 18명(1.0%)에 불과하다.

應答者의 94.6%(1,769명)가 初大卒 以上の 高學歷者에 속하며 高卒敎員은 4.4%(82名)에 불과해 道內 各級學校 學歷水準은 매우 높은 것에 屬하고 더우기 大學院卒業이 8.8%(164名)에 이르고 있음은 濟州敎育의 質 向上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敎職經歷에 있어서는 10年 미만이 51%(956명), 10年 以上이 49%(916名)로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宗教別 分布는 無宗教가 46%, 佛敎 29%, 天主教 13.1%, 基督教 10.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擔當敎科目 分布는 中·高等學校 敎員 1,294명만을 대상으로 보류되고 있는 바, 表2-2-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國語 16.7%(216名), 家庭實業 16%(207명) 外國語(英語, 佛語, 日本語 包含)와 社會(一般社會, 國史, 地理, 世界史)가 각 12.8%(166名)이며 數學은 11.8%(152명)順으로 되어 있어 各 敎科目이 골고루 응답에 參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또 남여 性比는 68.2% 대 31.8%로 되고 있다.

3. 資料處理

蒐集된 資料의 分析은 濟州삼성컴퓨터 학원에서 電算處理 되었으며 本 研究에 使用된 統計値는 百分比(%), χ^2 檢證을 使用하였다.

그리고 表中에 表示된 * 表는 李相禹 “韓國人의 統一意識變化추세와 濟州道 敎員과 의 意識과를 直接 比較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Ⅲ. 統一意識 構造 論議 및 分析

1. 戰爭 可能性

濟州道內 敎員들은 南北韓間의 戰爭再發에 對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음이 調査結果 나타났다. 〈表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敎員이 7.0% (8.5%) 나 되며 대체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24.6% (24.9%) 까지 합하면 31.6% (33.4%)의 應答者가 戰爭 可能性을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戰爭 可能性을 반반으로

表 3. 南北韓 戰爭 可能性

-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00년에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범례 (이하공통)

()내는 백분율

응답내용	현	재	2000년	
(1) 대단히 많다	131(7.0)*	214(8.5)	91(4.9)*	86(3.4)
(2) 대체로 많다	460(24.6)*	630(24.9)	305(16.3)*	269(10.7)
(3) 반반이다	640(34.2)*	704(27.9)	412(22.1)*	583(23.1)
(4) 대체로 적다	490(26.2)*	608(24.1)	553(29.6)*	1,030(40.9)
(5) 대단히 적다	145(7.8)*	370(14.6)	477(25.5)*	551(21.9)
합 계	1,869(100)*	2,526(100)	1,867(100)*	2,519(100)
무응답	3 (기타 3 합계포함) * 42		6 (기타 29 합계포함) * 49	

보는 34.2% (27.9%) 까지 포함하면 65.8% (61.3%)에 이르고 있다.

2000년의 展望에 對하여는 戰爭 可能性이 낮아지리라는 應答이 많다. 즉 그때까지도 戰爭 可能性이 높을 것이라고 보는 敎員은 4.9% (3.4%), 상당수준 높을 것이라고 보는 敎員은 16.3% (10.7%), 戰爭 可能性이 반반이라고 보는 敎員은 22.1% (23.1%) 등으로 이들 應答을 합하면 43.3% (37.2%)에 그치고 있다. 全國調査에

比하면 약간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現在 34%의 應答을 보이고 있는 戰爭 可能性에 대한 否定的 意識을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 표 2 > 의 연령 階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25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20, 30代와 그 당시에 아주 어렸던 40代가 全體 應答者의 88.46%에 이른다는 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 표 4 > 에서 戰爭이 났을 경우의 行動樣態에 對한 質問에는 應答者의 身分이 公務 員임을 意識한듯 47.5%가 上級部署의 指示에 따르겠다는 反應이었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겠다는 應答이

表 4. 戰爭時 行動樣態

○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군에 입대하여 싸우겠다	280(15.1) *	931(36.4)
(2)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겠다.	62(3.3) *	121(4.7)
(3) 전세를 보아가며 행동하겠다.	460(24.8) *	355(13.9)
(4) 해외로 이주하겠다	5(0.3) *	10(0.4)
(5) 상급부서의 지시에 따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881(47.5) *	947(37.1)
(6) 기 타	166(9.0) *	192(7.5)
합 계	1,854(100) *	2,556(100)
무 응 답	18 *	12

3.3%(4.7), 해외로 이주하겠다는 應答이 0.3%(0.4%)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問項에서는 男女 性別이 크게 作用하고 있다. 즉, 다음 < 표 5 >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군에 입대하여 싸우겠다'라는 반응 가운데 남자가 250명, 여자가 30명인 반면 '③ 전세를 보아가며 행동하겠다'에서는 남자가 211명, 여자가 249명으로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表 5. 戰爭時 性別 行動 樣態

	① 군에 입 대하여 싸 우겠다	② 안전한 곳으로 피 난가겠다	③ 전세를 보아 가며 행동하겠다	④ 해외로 이주하겠다	⑤ 상급부 서의 지시에 따르겠다	⑥ 기 타	무응답	計
남	250(19.7)	22(1.7)	211(16.6)	4(0.3)	696(6.9)	87(6.9)	7	1,277(100)
여	30(5.1)	40(6.8)	249(42.6)	1(0.2)	185(31.7)	79(13.5)	11	595(100)
計	280(15.1)	62(3.3)	460(24.8)	5(0.3)	881(47.5)	166(9.0)	18	1,872(100)

表 6. 南北韓 軍事力 比較

○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선생님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북한이 훨씬 우세하다	658(35.5)
북한이 약간 우세하다	879(47.4)
남북한이 대등하다	234(12.6)
남한이 약간 우세하다	63(3.4)
남한이 훨씬 우세하다	19(1.0)
합 계	1,853(100)
무 응 답	19

또 戰爭 可能性과 밀접한 關係가 있는 南北韓 軍事力 比較에서는 <表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北韓이 우세하다”에 82.9%가 반응하고 있으며 “南北韓이 對等하다”에 12.6%이고, “南韓이 우세하다”에는 4.4%가 응답함으로써 戰爭抑制에 따른 對備 策의 모색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응답에는 各級 學校 別과 男女에 關係없이 同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등하다”고 응답한 것은 우리의 安保力量 축적이 이루어져 北韓의 戰爭도발에 자신있는 방어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對 北韓 認識

敎員들의 對北韓 認識은 全國傾向과 비슷하게 “共產主義 體制속에서 好戰的이고 잔인한 독재집단”으로 귀일하고 있다. <表 7>에서와 같이 독재집단[第1順位 19.8%(10.1%), 第2順位 19.7%(9.2%), 第3順位 13.3%(6.7%)], 共產社會[18.8%(11.8%), 5.5%(7.3%), 5.4%(5.7%)], 好戰性[17.7%(19.1%), 15.7%(17.3%), 10.0%(16.6%)], 殘忍性[11.5%(12.0%), 10.5%(9.0%), 8.2%(9.3%)]의 順으로 反應을 보이고 있다. 또 其他 問項에 應答한 敎員들도 유일사상 폐쇄, 획일사회, 야만적, 악랄성, 철의 장막 등등으로 反應하고 있어 否定的 인상을 깊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敎員들의 學歷水準이 대부분 초대졸 이상(94.5%) 이어서 인지 北韓에 對해 덜 感情的이고 理性的으로 판단하여 理解

表 7. 對北韓 認識 : 自由聯想

○ 선생님께서는 “북한·북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 어떠한 연상이 떠오르십니까? 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분류항목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1)공 산 사 회	342(18.8) * 296(11.8)	100(5.5) * 170(7.3)	98(5.4) * 110 (5.7)
(2)호 전 성	322(17.7) * 429(19.1)	287(15.7) * 402(17.3)	181(10.0) * 322(16.6)
(3)잔 인 성	210(11.5) * 302(12.0)	191(10.5) * 210(9.0)	148(8.2) * 180(9.3)
(4)강 제 성	56(3.1) * 334(13.3)	128(7.0) * 321(13.8)	108(6.0) * 252(12.9)
(5)체제경직성	86(4.7) * 325(12.9)	133(7.3) * 305(13.1)	91(5.0) * 239(12.3)
(6)독재집단	361(19.8) * 253(10.1)	360(19.7) * 215(9.2)	241(13.31) * 131(67)
(7)경제적빈곤	24(1.3) * 161(6.4)	142(7.8) * 254(10.9)	178(9.8) * 181(9.3)
(8)이 질 화	72(3.9) * 161(6.4)	125(6.9) * 174(7.5)	197(10.9) * 210(10.8)
(9)우 리 동 포	93(5.1) * 102(4.1)	72(3.9) * 53(2.3)	244(13.5) * 58(2.9)
(10)빼앗긴지역	15(0.8)	26(1.4)	71(3.9)
(11)기 타	243(13.3) * 153(6.1)	259(14.2) * 221(9.5)	252(13.9) * 259(13.3)
합	계 1,824(100) * 2,516(100)	1,823(100) * 2,325(100)	1,809(100) * 1,942(100)
무 응 답	56 * 52	56 * 243	63 * 626

※ 기타란에 표시된 어휘들: 유일사상, 이상화, 김일성, 무자비, 강제노동, 폐쇄·획일사회, 빵쟁이, 간첩, 파괴자, 침략자, 부자유 우리의적, 불평등사회, 야만적, 악랄성, 거짓선전, 인간존엄성 박탈, 4.3사건, 중오의 대상, 적대감(의식), 땅굴, 불모지대, 감옥같은 사회, 생지옥이 산가족, 꼭두각시, 중·소예속, 고아, 심술꾼, 무섭다, 음모성, 철의장막, 다른이념 체제, 착취당하는 국민생활 등등.

하려는 意味를 약간은 發見할 수 있다. 즉, 우리 동포라는 인식이 第1順位에서 5.1%(4.1%), 第2順位에서 3.9%(2.3%) 反應하다가 第3順位에서는 13.5%(2.9%)로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全國調査에서 高學歷者의 應答結果와 거의 一致하고 있어 注目할만 하다. 어쨌든 北韓에 對한 이러한 否定的 視角은 심화되어 가는 異質化의 가속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平和統一 達成을 爲한 동포애의 발양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作用할 것 같다.

北韓 住民과의 심리적 거리를 間接 測定하기 위한 方法으로 北韓 동포를 만나 대화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외국인과의 대화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表 8>에 나타난

結果를 보면 외국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應答은 19.8% (22.4%)에 불과하고 이웃사람과 만나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應答도 그와 비슷한 17.9% (22.1%)였으나, “다르긴 하겠지만 외국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보는 敎員이 62.3% (55.4%)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보면 分斷 4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리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이 높아졌다 하여도 같은 핏줄, 같은 민족 성원이라는 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본도 敎員들은 全國趨勢에 비하여 그 농도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차원에서의 敎員들의 대북한 인식은 동포라는 친근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 북한이 이겨야 한다고 應答한 敎員은 72.6% (50.9%)로서 강한 동족의식을 나타냈으며 이는 全國調查에 比할때 특이한 것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이겨야 한다고 答한 敎員 역시 27.4%에 이르고 있는데 全國調查結果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8. 對北韓 認識： 心理的 距離

○ 해방이후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북한동포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어떠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1) 거의 외국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164 (8.8)	* 201 (7.9)
(2) 대체로 외국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206 (11.0)	* 369 (14.5)
(3) 다르긴 하겠지만 외국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지만 않을 것이다	1,162 (62.3)	* 1,408 (55.4)
(4) 대체로 우리 이웃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267 (14.3)	* 422 (16.6)
(5) 거의 우리 이웃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67 (3.6)	* 141 (5.5)
합	계	1,866 (100) * 2,541 (100)
무	응	6 * 47
답		

表 9 . 對北韓 認識 : 國際 競技

○ 북한이 참가한 국제경기에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입니까?

(1) 다른 나라가 이기는 것보다 북한이 이기는 것이 좋겠다	1,105(72.6) * 1,284(50.9)
(2) 북한이 이기기 보다는 다른 나라가 이기는 것이 좋겠다	418(27.4) * 1,237(49.1)
합 계	1,523(100) * 2,521(100)
무 응 답	349 * 47

3. 南北 會談

韓半島 問題와 南北關係를 處理 改善하기 爲한 論議는 解放前後 以來 주변강대국 또는 南北當事者間에 여러 通路를 창구로 하여 꾸준히 進行되어 왔으나 그 進展과 成果는 아직도 미흡한 狀態에 머물러 있다.

解放前後의 強大國 協商〈表 10〉“7.4 南北共同聲明” 以前の 協商事例〈表 11〉 南北對話 展開圖〈表 12〉 및 南北會談 經過〈表 13〉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¹¹⁾

赤十字會談은 1970年代初 以來 第 10次, 經濟會談은 1984年 11月 以來 第 5次, 國會會談을 爲한 豫備接觸은 第 2次까지 進行되어 國內의 여건 때문에 교착 狀態에 빠져 있으나 體育會談은 1985年 10月 로잔느에서 IOC 주선으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單一팀 構成과 올림픽 開催 및 競技分散 進行등에 關하여 協議가 이루어지고 있다.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編, 北韓의 實相(고려원, 1986) PP.396~411

表 10. 解放前後의 強大國 協商(會談)

會談名稱	參加國	內 容
카이로會談 (43.11)	美·英·中	○ 戰爭이 끝나는 대로 (韓民族에게는 正當한 順序를 밟아서 自由와 獨立을 부여하기)로 合意 ※ (카이로)會談에 앞서 같은 해 4月 (루즈벨트)大統領은 (이튼)英國首相과의 會談에서 戰後 韓半島에 대해서는 (美·蘇·中國이 共同 管理하는 信託統治를 實施하기)로 合議
테헤란會談 (43.11.28)	美·英·蘇	○ 韓國에 對해 (獨立을 부여하기 전에 최소한 40年間 信託統治를 實施해야 한다)고 主張, 이에 대한 (스탈린)의 同意를 獲得
알타會談 (45.2.)	美·英·蘇	○ 美·英·蘇 3國 頂上會談에서도 繼續 (韓國에 대한 最小 20~30 年間의 美·英·蘇 3國 信託統治)를 主張 ※ 뿐만아니라 알타會談에서는 蘇聯의 對日參戰에 合議하는 代身 그 댓가로 (滿洲地域에서 러시아帝國이 1905年 以前에 享有했던 權利를 認定키로 合議)함으로써 結果적으로 戰後 韓半島의 南北分斷의 길을 事實上 열어 놓게 되었다.
포츠담會談 (45.7.)	美·英·蘇	○ 韓半島 問題에 關하여 (카이로)會談의 合議事項을 그 대로 再確認함으로써 韓國은 (正當한 順序를 밟아서) 獨立하게 될 것이라는 原則을 再強調 ※ 이들 論議의 大部分은 美·英·蘇 4大國의 信託統治案으로 集約
美·蘇共同 委員會와 決裂 (45.12~47)	모스크바 3 相 會 議 (美·英·蘇) 美·蘇共同 委員會 (美·蘇)	○ 1945年 12月 16日~20日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3個 國外相會談에서 (向後 5年間 美·英·中·蘇의 4大國에 의한 信託統治決議案)을 決定 ○ 이 決議에 따라 1946年 3月 20日~5月 12日, 1947年 5月 21日~10月 18日까지 2次에 걸쳐 美·蘇 共同委員會가 서울에서 開催되었으나 兩國間的 懸隔한 基本立場의 差異와 國內의 左·右 對立(共產側은 贊託, 右翼陣營은 反託)으로 아무런 成果도 거두지 못한 채 決裂

表 11. 「7.4 南北共同聲明」以前の 協商事例

協商名	主 體	內 容	備 考
南北政治 協商會議 (48.4.17. ~23 平壤)	南側： 金 九 金奎植 北側： 金日成 一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年 3月 8日 右翼陣營의 民族指導者 金九, 金奎植 등은 UN決議에 의한 南韓의 統一民主政府 樹立을 위한 單獨選舉를 反對하고 北側에 〈南北政治協商會議〉를 提議했다. ○ 北側은 沈黙을 지키다가 3月 25日 突然 이를 受諾함으로써 開催되었다. ○ 같은해 4月 17日 開催된 平壤會議에서 北韓側은 會議場을 大規模 宣揚場으로 꾸며놓고 미리 準備한 脚本에 따라 會議를 進行시켰을 뿐 아니라 南側 人士들을 손님 또는 傍聽客으로만 取扱하는 등으로 共產主義 策動에 利用만 당함으로써 統一政府 樹立의 꿈을 간직해 온 右翼陣營의 실낱같은 希望은 水泡로 돌아갔다. 	※ 北韓은 이 會談이 金日成에 의해 最初 提起된 것으로 歪曲
休戰協商 (51.7.8 ~ 53.7.28 板門店)	共產側： 北韓, 中共 西方側：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休戰協商은 北韓側이 守勢에 물리자 蘇聯이 休戰을 提議, 이를 UN이 受諾 함으로써 成立되어 1953年 7月 27日 休戰協定이 調印되기까지 무려 575回의 會談(本會談 159回)을 記錄할 만큼 難航을 거듭했다. - 1951年 6月 23日 蘇聯의 UN首席代表 〈말리크〉는 「피의 代價」라는 UN라디오 放送프로에서 〈蘇聯人民은 韓國戰爭이 平和的으로 될 수 있다고 믿으며 …… … 그 첫 措置로서 交戰國은 38線에서 撤 	

協商名	主 體	內 容	備 考
		<p>收키 위한 討議가 始作되어야 한다)고 放送 - 1951年 6月3日<릿지웨이>將軍이 放送을 通해, 이를 受諾함으로써 7月8일부터 開始 ○ 이 協商은 共產側의 協商目的이 戰爭을 통 해 힘안들여 挽回하고 時間을 벌어 後日을 期約하려는 策略이었다.</p>	
제 네 바 政治協商 (54.4 ~6.15 제네바)	共產側 : 蘇聯, 中共 北韓 西方側 : 參戰 16 個 國 및 韓國 政府 代表	休戰協定에서 交戰 雙方은 協定締結後 3 個 月 以內에 韓半島 問題의 政治的 解決과 外國 軍의 撤收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高位 政治會談 을 開催하기로 合議, 이에 따라 1954年 4月 26日 유엔軍側 參戰 16 個國 및 大韓民國 政 府 代表와 蘇聯, 中共, 北韓代表가 參加한 政 治會談이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이 會談에서 共 產側은 韓半島 問題의 政治的 解決에 있어서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할 것을 拒否하고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方案만을 固執, 會談을 膠着시키는 한편 駐韓유엔軍을 包含한 모든 外軍의 事前 撤收만을 要求하는 不當한 立場 을 固守하여 1954年 6月 15日 決裂을 招來 했다.	
올 림 픽 會 談 (63.1.~7 로잔느, 홍콩)	南 · 北韓	1962年 6月 第59次 IOC總會 (모스크 바)에서 「1964年 東京올림픽大會에 南 北韓 單一팀 出戰條件을 決定」함에 따 라 表面化 되었다. ○ 南北韓 雙方 合議下에 1963年 1月 부터 7月까지 <로잔느> (1次) 및 홍콩 (2~ 3次)에서 實務會談을 開催했으나 合議없 이 決裂되었다.	

表 12. 南北對話 展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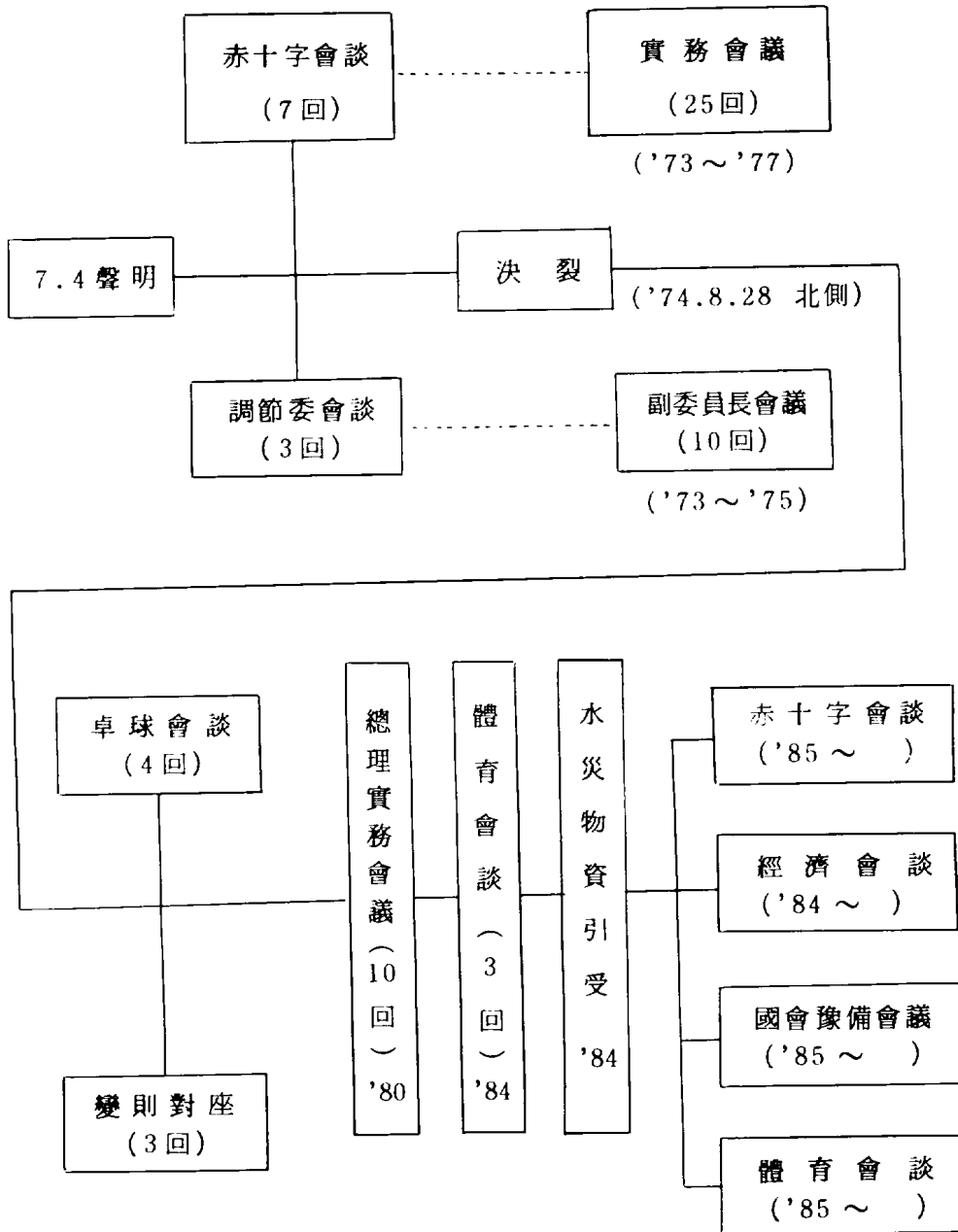


表 13. 南北會談 經過

會 談 名	經 過	備 考
南北調節委員會 (서울, 平壤)	〈成 立〉 ○ 李厚洛 訪北, 朴成哲 서울交換 訪問 ('72.5) ○ 7.4 南北共同聖明 發表(調節委 構成 包含) 〈經 過〉 ○ 共同委員長會議 3回 ('72.10~11) ○ 調節委 本會議 3回 ('72.11~'73.6) ○ 調節委 副委員長 會議 10回 ('73.12~'75.3) ※ '75.4 印支半島 赤化 狀況에서 北側은 會談을 全面 中斷	※ 北側 金英柱 會談 中斷 聲明 ('73. 8.28) 發表
南北赤十字會談 (서울, 平壤)	〈成 立〉 ○ 韓赤, 南北赤會談 提議 (1971.8.12) ○ 北赤, 受諾 (1971.8.14) - 豫備會談 9月中 板門店 開催, 派遣員 接觸 提議 〈經 過〉 ○ 豫備會談 25回, 實務會議 16回 ○ 本會談 7回 (서울, 平壤 번갈아 開催) ○ 代表會議 7回 ('73.11~'74.5) 實務會談 25回 ('74. 7~'77.12) ※ 赤十字會談 合議事項 ('72.6.16 第20次 豫備會談) - 住所, 生死通報 (家族, 親戚) - 自由로운 訪問, 相逢 (家族, 親戚) - 自由로운 書信去來 (家族, 親戚) -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家族) - 其他 人道的 問題	※ 赤十字本會談은 '85.5 再開 ※ 南北 離散家族 故 鄉訪問團 交流 (1985.9.21~ 9.24各 151名)

會談名	經 過	備 考
變則對座 (板門店)	<p>〈 成 立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年 1月 우리側, 無條件 對話提議 (어떤水準, 어떤場所, 어떤時期에서든 對話用意) ○ 1979年 2月, 北側〈民族統一委〉發足 위한 接觸 主張으로 成立 <p>〈 經 過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年 2月 ~ 4月間 3次 接觸 ○ 우리側은 調節委員會 再開 促求, 北側은 調節委無用論 主張하고 連絡代表團 名稱으로 對應 	<p>※ 當局間 對話를 政治協商 會議體로 誘導하기 위한 典型的 事例</p>
南北韓卓球代表 會談(板門店)	<p>〈 成 立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年 2月 20日, 北側은 第35次 平壤 「世卓」을 앞두고 南北 單一팀 構成 提議 ○ 1979年 2月 24日 大韓體育會, 放送 通告文으로 受諾 <p>〈 經 過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年 2月 27日 ~ 3月 12日間 4次의 會談 ○ 雙方主張 對立으로 決裂 	<p>※ 北側은 우리側의 平壤大會 參加 既得 權利奪을 目的으로 會談 提議</p>
總理會談實務 會議(板門店)	<p>〈 成 立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年 1月 北側은 우리側 人士 11名 에 書信 傳達 ○ 우리 側은 總理會談 實務會議 開催를 提議 <p>〈 經 過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年 2月 6日부터 8月 20日까지 	<p>※ 北側은 「10.26 事態」以後의 國內混亂을 平和攻勢로 더우 加重시킨다는 意圖아래 同會談 提議</p>

會談名	經 過	備 考
	<p>10 회 의 會談 進行</p> <p>○ 北側은 國內情勢 및 總理資格 是非等으로 遲延시키다가 決裂</p>	
<p>南北體育會談 (板問店)</p>	<p>(成 立)</p> <p>○ 1984年 3月 30日, 北側은 (南北스포츠 有一팀) 構成 提議</p> <p>○ 1984年 4月 2日, 우리 側은 南北體育會 談 提議</p> <p>(經 過)</p> <p>○ 1984年 4月 9日~ 5月 25日 期間中 3次 의 會談 開催後 仰側의 4次會談 不應으로 決裂</p>	<p>※ 北側은 LA올림 픽 不參 名分을 마련키 위해 同 會談 提議</p>
<p>水災物資引導引受 (板門店, 仁川, 北坪)</p>	<p>(成 立)</p> <p>○ 1984年 9月 8日, 北側의 水災物資提供 提議</p> <p>○ 1984年 9月 14日 韓赤總裁 引受 表明</p> <p>(經 過)</p> <p>○ 1984年 9月 30日~ 10月 2日間 物資引受</p> <p>○ 白米 5萬石, 시멘트 10만톤, 천 50만m 其他 醫藥品 等</p>	<p>※ 北側은 過去 數 次에 걸친 物資提供 提議 (政略的 宣傳)를 「交流와 協力」 次元에서 과감히 受容 (南北 韓 國力 隔差의 自信感과 對話 通路 마련을 위해 受諾)</p>

濟州道の 敎員은 以上 네가지 會談에 대하여 對北韓 認識과 더불어 背定的인 意味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4)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십자회담 71.8%(75.3%), 경제회담62.4%(76.3%) 체육회담 65.6%, 국회회담 42.3%의 반응은 전국수준에 비해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최초의 회담 중단사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政治性을 다분히 내포한 국회회담을 제외하고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14 南北韓 各種 會談에 대한 期待

○ 남북한 각급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회담구분 내 용	적십자회담	경 제회담	체 육회담	국회회담	총 합
(1) 크게 기대한다	287(15.3) * 610(23.9)	213(11.4) * 565(22.3)	232(12.4)	121(6.5)	853(11.4)
(2) 대체로 기대한다	393(21.0) * 707(27.7)	629(33.7) * 862(33.9)	655(35.0)	449(24.1)	2,126(28.5)
(3) 조금 기대한다	663(35.5) * 606(23.7)	322(17.3) * 511(20.7)	337(18.0)	219(11.7)	1,540(20.6)
(4) 대체로 기대하지 않는다	452(24.2) * 476(18.6)	603(32.3) * 450(17.7)	531(28.4)	805(43.2)	2,391(32.0)
(5)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75(4.0) * 156(6.1)	99(5.3) * 150(5.9)	114(6.1)	271(14.5)	559(7.5)
합 계	1,870(100) * 2,555(100)	1,866(100) * 2,538(100)	1,869(100)	1,865(100)	7,470(100)
무 응 답	2 * 13	6 * 30	3	7	18

(表 15)에서 나타나듯이 국제회담에 대하여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은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 최고 당국자 회담 성취에 대하여서도 41.4%만이 긍정적인 반응이며 또 성취시기에서는 5년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86%에 이르고 있어 극히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以上の 狀況을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敎員들은 政治性을 띠고 있는 會談에는 별로 期待하지 않으나, 인도주의적이고 國家經濟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會談에는 그 成功을 열망하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러한 결론은 '88 올림픽 북한 참가여부 (表 16)에서도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北韓이 올림픽에 不參할것이라는 意見이 54.1%에 이르고 있으며, 參加할 것

으로 기대하는 의견은 6.6%에 불과하다. 그리고 응답자의 38.2%은 주변상황 변화에 參加 與否를 전가시켜 버림으로써 關心 자체에 외면하는 듯한 의식을 보게된다.

表 15 南北韓 最高當局者會談 成就

○ 남북한 최고 당국자 회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만일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성취 여부

가 능 하 다	756(41.4)
불 가 능 하 다	900(49.3)
기 타	168(9.2)
합 계	1,824(100)
무 응 답	48

○ 개최 시기

1 년 후	22(2.6)
3 년 후	95(11.4)
5 년 후	228(27.2)
10 년 후	353(42.2)
기 타	139(16.6)
합 계	837(100)
무 응 답	1,035

表 16 '88올림픽 北韓 參加 與否

'88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이때 북한이 참가여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가할 것이다	123(6.6)
불참할 것이다	1,008(54.1)
주변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711(38.2)
기 타	20(1.1)
합 계	1,862(100)
무 응 답	10

반면에 1984年9月 우리가北韓이 提供한 水災物資를 “ 잘 받아 드렸다.”고 보는 敎員이 82.7%에 달하고 있음도 그 脈絡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表 17)

表 17 水災物資 受領

1984年 9월에 우리는 북한이 제공한 수재물자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잘 받아 드렸다	1,542(82.7)
거절했어야 했다	137(7.3)
기 타	186(10.0)
합 계	1,865(100)
무 응 답	7

4. 統 一 方 案

주지하는 바와같이 統一成就를 위한 各種의 方案이 南北韓 當局 또는 國內外 學者들에 의해서 公式 非公式的으로 提示되고 있다.

(表 18)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濟州道の 敎員들은 우리 政府에서 發表 推進하고 있는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에 절대적인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즉 全體 應答者의 82.6% (1,524명)가 이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民主化 方案을 비롯하여 주변강대국과 유엔에 기대하는 方案등에도 17.4% (321명)가 응답함으로써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表 18 統 一 方 案

통일성취를 위한 각종의 방안이 남북한 또는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통일방안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524(82.6)
중립화 방안	142(7.7)
주변강대국의 합의	25(1.4)
유엔을 통한 통일방안	89(4.8)
기 타	65(3.5)
합 계	1,845(100)
무 응 답	27

政策當局者들은 이 소수의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활발한 統一論議를 통하여 이들의 意見을 수렴하는가, 아니면 우리 統一政策의 正當性和 當爲性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귀일된 여론을 形成하도록 하여야 한다.

〈表 19, 20, 21, 22〉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南北韓의 統一方案에는 몇가지 差異點이 발견된다.¹²⁾

첫째, 統一된 한반도의 組織과 政體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둘째, 統一의 方案에 대한 差異이다.

셋째, 統一接近 方法에도 差異를 보인다.

넷째, 民族統一協議會議와 北韓 提案의 100人 共同會議 구성과 기능에도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表 19. 韓半島 統一에 對한 南北의 基本立場

韓 國 (1972 ~ 1981)	北 韓 (1972 ~ 1980)
○ 相 互 條 約	○ 平 和 條 約
계속적인 남북한 대화, 상호문화 개방,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교류와 협력, 상호 내정불간섭, 인도주의적 문제의 선결	국제연합사령부와 미군의 철수문제 해결, 남북한의 병력을 10만명 정도로 감축 군비경쟁과 재무장 중지
○ 相 互 不 可 侵 協 定	○ 南 北 韓 間 相 互 協 助 和 交 流 政 治, 軍 事, 外 交, 經 濟, 文 化 分 야
확고한 평화적기반, 국제연합군사령부와 미군의 한국에서의 계속적인 주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1953년 휴전협정 준수	○ 大 民 族 會 議 고려민주연방공화국하에서 연방제 실시
○ 統 一 된 中 央 政 府	○ UN에 單一政府로 參席, 統一된 中 央 政 府
국제위원회의 감시와 공정한 선거관리하에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자유 총선	외세의 간섭없이 민주적 바탕위에서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12) 具永祿外, 南北韓 政治統合과 國際關係 (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1986) PP.20 - 40.

表 20 韓國의 統一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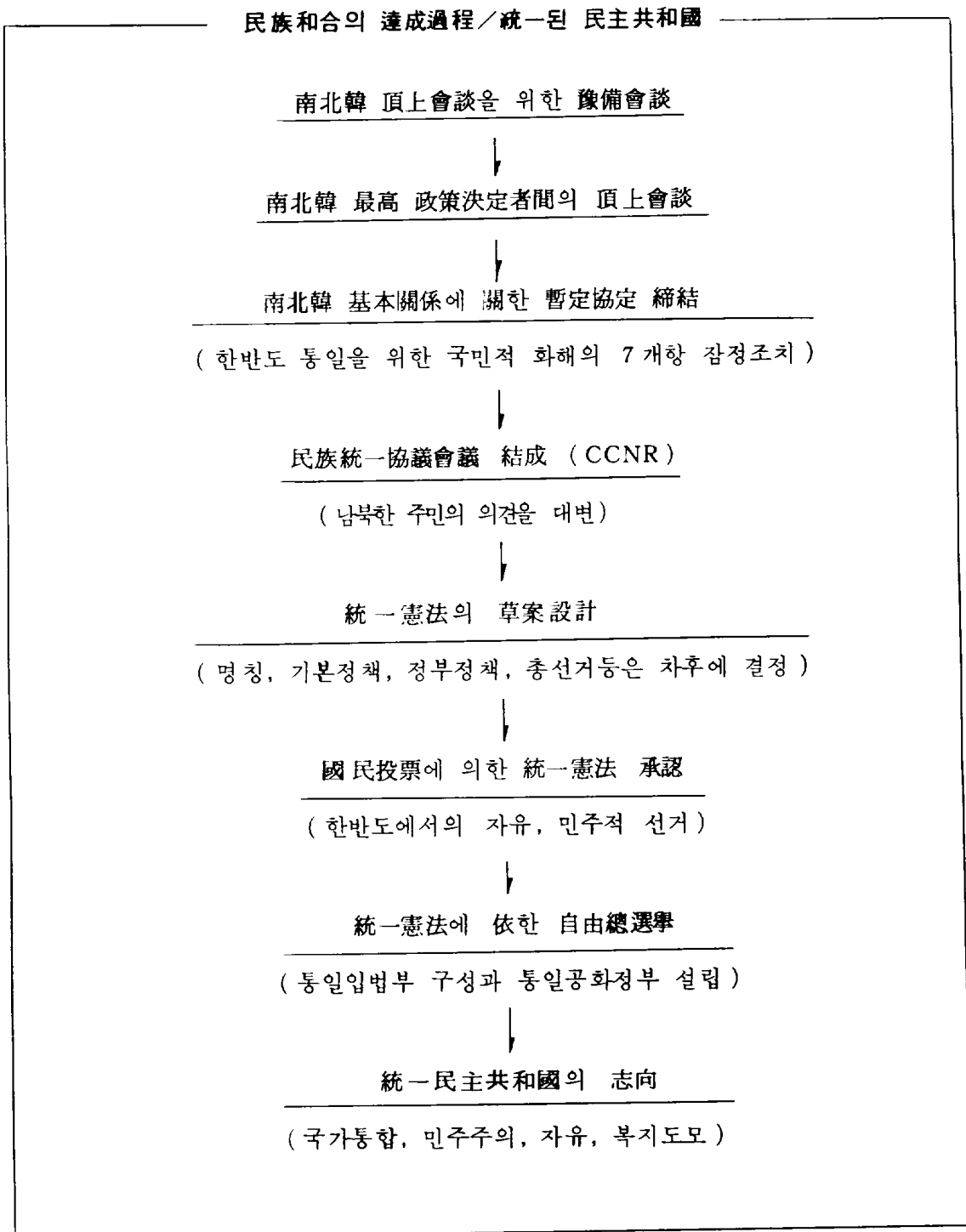


表 21 北韓의 統一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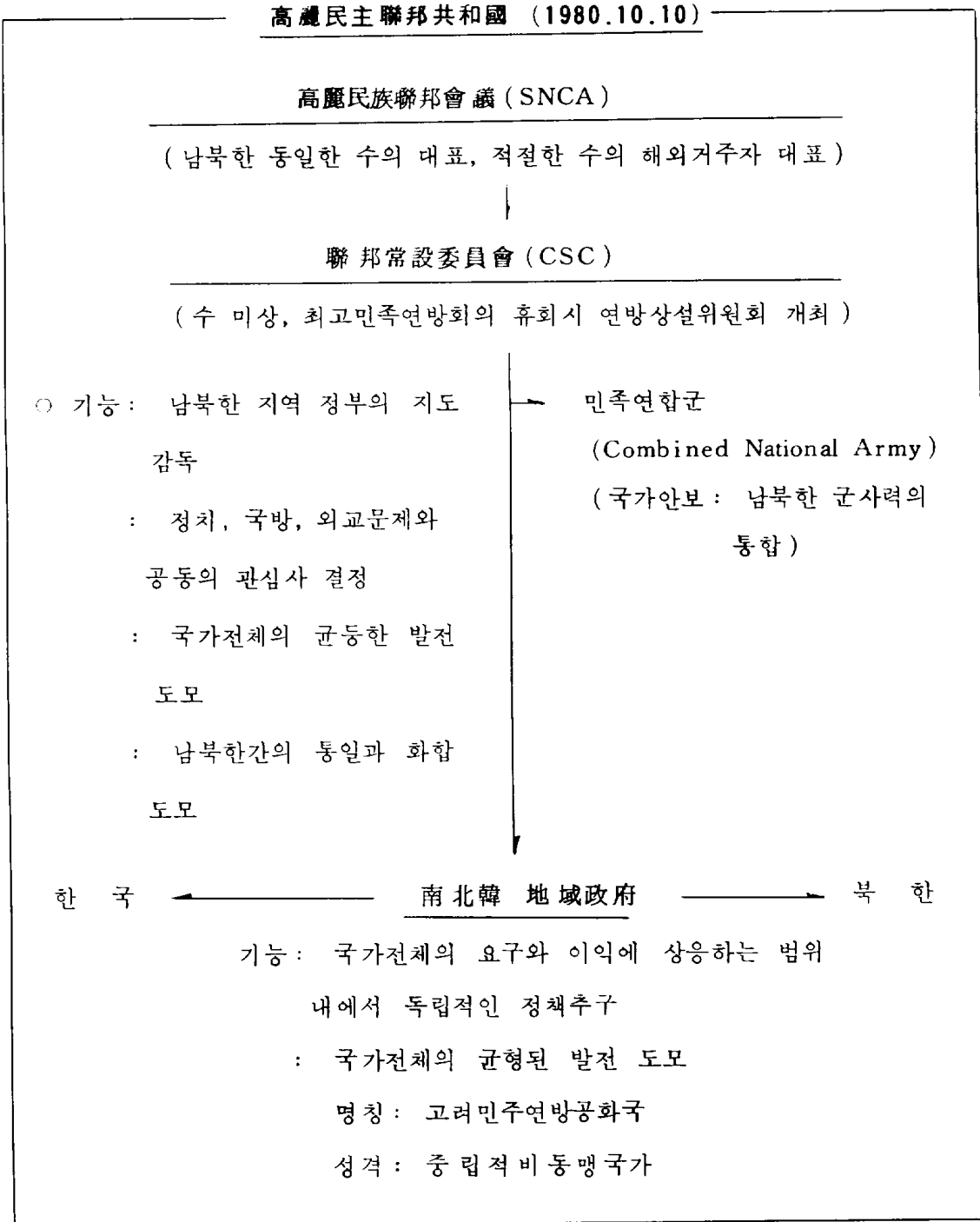


表 22 南北韓 統一方案의 比較

韓 國	北 韓
<p>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統一協議會 (CCNR) 및 憲法草案 ○ 國民投票 ○ 自由로운 總選舉 ○ 統一政府와 立法府 設立 ○ 自決原則, 民主的, 平和的 過程 	<p>高麗民主聯邦共和國 方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高民族聯邦會議・聯邦常設委員會 ○ 聯邦國家의 統一政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 地域政府 ○ 政治, 國防, 外交 그밖의 問題
<p>中 間 的 案</p> <p>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 締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相互互惠, 平等原則 2. 暴力과 軍事的 使用의 拋棄, 對話와 協商에 의한 모든 문제의 平和的 해결 3. 政治體制와 社會制度의 相異性 認識 내정불간섭 4. 休戰協定 유지와 軍備競爭, 軍事的 對決의 증식 5. 무역, 交通, 우편, 체신, 스포츠, 教育 文化의 交流와 協力을 통한 社會의 상호 개방 (예: 이산가족 재결합을 포함한 자유 여행) 6. 双務的, 多選的, 協定과 條約의 준수 7. 서울과 평양에 常住하는 연락대표부 설치 	<p>前 提 條 件</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駐韓美軍 撤收와 韓美防衛條約 폐기 2. 韓國의 民主化 (용어개념 유의: 필자) 3. 反共主義 정책포기,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지, 統革黨 認定 4. 二個의 코리아 政策 拋棄 5. 光州事件에 대한 사과와 정치범 석방
<p>過 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 最高政策決定者間의 頂上會談 ○ 各료 대표단의 豫備會談 ○ 20 個項 示範事業 	<p>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10大施政 政策</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주정책 2. 민주주의 - 국가통일을 진작 3. 경제적 협력과 교육 및 사유재산 보호 4. 과학, 문화, 교육분야 협력과 교류 5. 交通, 체신업무의 개방 6. 생활안정과 복지 도모 7. 민족연합군 조직과 남북한의 병력을 10~15만명으로 감축 8. 해외동포의 권익보호 9. 남북한 지역 정부의 외교정책 통합 모든 조약 협정 폐기 10. 평화적 비동맹 외교정책 <p>※ 10대시정 정책은 전제조건 충족 후 시행 유의: 필자</p>

5. 統一의 展望

가. 統一時期

우리 국민들이 내다보는 統一의 時期는 全國調査에 의하면 대체로 21世紀 전반기를 생각한다고 판단되어 있다. 全國調査에 의하면 앞으로 5年(6.4%) 또는 10年内(14.5%)에 統一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20年後(17.9%), 30年後(16.1%), 50年後(13.5%)等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많으며 영원히 불가능 하리라고 보는 국민은 23.7%에 달하고 있다.

〈表 23〉에서 濟州道 敎員들의 경우 統一時期豫測에는 極히 회의적이고 무관심하여 머언 훗날의 일로 미뤄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年内의 統一可能에 대한 응답은 6.7%에 불과하며 앞으로 50年후부터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반응이 41.5%, 모르겠다는 의미를 包含한 무관심 응답율이 2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問題에서 研究者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결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對策이 必要하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表 23. 統一時期에 對한 展望

○ 선생님께서는 언제쯤 통일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1) 5년내에	9(0.5) * 159(6.4)
(2) 10년후	113(6.2) * 357(14.5)
(3) 20년후	248(13.7) * 441(17.9)
(4) 30년후	241(13.3) * 398(16.1)
(5) 50년후	221(12.2) * 333(13.5)
(6) 100년후	173(9.5) * 194(7.9)
(7) 영원히 불가능	359(19.8) * 584(23.7)
(8) 기 타 (모르겠다)	452(24.9) *
합 계	1,816(100) * 2,466(100)
무 응답	56 * 102

나. 統一과 政策理念

理念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목표가치로 統一을 생각하고 있는 교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24>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統一을 염원하는 응답은 81.5%(78.9%)에 이르고, 더우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되는 통일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분단 狀態의 지속을 원하는 傾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도 교원의 의식중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統一의 目標가치보다 더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를 상관하지 말고 統一을 해야 한다는 반응도 17.6%(21.1%)에 달하고 있는 데 이는 통일에 대한 希望이 強力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表 24 . 統一의 理念과 體制

○ 선생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빨리 통일은 하고 볼 일이다.	41(2.2) * 309(12.2)
(2) 이념과 체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286(15.4) * 228(8.9)
(3)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통일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240(66.6) * 1,436(56.5)
(4)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안된다면 차라리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가 낫다.	278(14.9) * 569(22.4)
(5) 기 타	17(0.9)
합 계	1,862(100) * 2,542(100)
무 응 답	10 * 26

다. 統一努力 評價

南北한 兩側의 상대적 統一努力 比較評價에 대한 교원들의 의식은 <表 25>에서와 같이 과거 49.5%(80.2%), 현재 73.9%(84.5%), 미래 62.3%(75.5%)의 反應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韓國側이 北韓側에 비해 積極的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거 北韓側이 더 積極的이다. 14.5%(2.7%), ‘양측 모두 소극적이다’ 22.8%(9.6%)의 反應과 미래 ‘양측 모두 적극적이다’ 16.9%(12.5%)의 반응은 우리측 통일 노력의 缺如를 시사하는 反應으로 판단된다. 즉, 과거 ‘북한측이 더 적극적이었다’라

表 25. 統一努力의 評價

○ 지금까지 남북한 어느쪽이 더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와 미래에는 어떠하고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공란에 ○표)

응답내용	과거	현재	미래
(1) 한국측이 더 적극적	788(49.5) * 2,047(80.2)	1,291(73.9) * 2,158(84.5)	990(62.3) * 1,908(75.5)
(2) 북한측이 더 적극적	231(14.5) * 68(2.7)	56(3.2) * 40(1.6)	59(3.7) * 63(2.5)
(3) 양측모두 적극적	108(6.8) * 89(3.5)	129(7.4) * 101(4.0)	268(16.9) * 316(12.5)
(4) 양측모두 소극적	363(22.8) * 245(9.6)	203(11.6) * 165(6.5)	108(6.8) * 118(4.7)
(5) 모르겠다.	101(6.3) * 104(4.1)	69(3.9) * 90(3.5)	165(10.4) * 123(4.9)
합계	1,591(100) * 2,553(100)	1,748(100) * 2,554(100)	1,590(100) * 2,528(100)
무응답	281 * 15	124 * 14	282 * 40

는 응답 14.5%와 ‘양측 모두 소극적이다’ 라는 응답 22.8%를 합한 37.3%의 反應은 우리측 통일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비판적인 지적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表 5-4〉에서 알 수 있듯이 全國調查에서 大學以上の 高學歷 應答率과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表 26. 統一努力의 評價(高學歷)

전국조사에서 고학력자(대학재학 이상)의 응답비교

	全國調查	全國教員調查
북한측이 더 적극적	5.4%	14.5%
양측 모두 소극적	26.0%	22.8%
計	31.4%	37.3%

라. 統一沮害 要因

무엇이 統一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즉, 統一沮害 要因 調査에 對한 敎員들의 順次的 反應結果를 集計한(表 27)에 의하면, 重要하게 등장하는 要因은 이념대립 [1順位 61.3%(44.6%), 2順位 15.2%(10.1%), 3順位 10.6%(10.9%)], 강대국 이해관계 [1順位 15.6%(8.9%), 2順位 29.4%(16.2%), 3順位 24.9%(22.8%)], 북한 指導層의 이해관계 [1順位 10.4%(18.7%), 2順位 18.2%(15.1%), 3順位 10.7%(5.8%)], 상호불신 [1順位 6.9%(13.6%), 2順位 20.7%(25.9%) 3順位 22.1%(16.4%)]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7. 統一沮害 要因

○ 다음 항목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일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3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저해요인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1) 이념대립	1,133(61.3) * 1,038(44.6)	280(15.2) * 232(10.1)	195(10.6) * 244(10.9)
(2) 북한지도층의 이해관계	193(10.4) * 436(18.7)	335(18.2) * 356(15.1)	196(10.7) * 129(5.8)
(3) 상호불신	127(6.9) * 317(13.6)	381(20.7) * 595(25.9)	405(22.1) * 364(16.4)
(4) 강대국 이해관계	289(15.6) * 209(8.9)	541(29.4) * 371(16.2)	456(24.9) * 508(22.8)
(5) 남북한이도층의이관계	81(4.4) * 106(4.6)	173(9.4) * 185(8.1)	269(14.7) * 425(19.1)
(6) 남북한군비경쟁	7(0.4) * 103(4.4)	62(3.4) * 260(11.4)	141(7.7) * 221(9.9)
(7) 경제력차	5(0.5) * 99(4.3)	53(2.9) * 252(11.0)	98(5.4) * 225(10.1)
(8) 대한민국지도층의이해관계	12(0.6) * 19(0.8)	13(0.7) * 33(1.4)	35(1.9) * 94(4.2)
(9) 기타	1(0.1) * 1(0.1)	1(0.1) * 6(0.3)	36(2.0) * 15(0.7)
합 계	1,848(100) * 2,328(100)	1,839(100) * 2,290(100)	1,831(100) * 2,225(100)
무응답	24 * 240	33 * 278	41 * 343

〈表 5-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全國調查에서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教育水準이 낮은 應答者들은 주요 統一沮害 要因으로 북한정권을 꼽고 있는데 이는 盲目的인 反共意識을 갖고 있는 사람이 低學歷 集團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고학력 집단에서는 주요 統一沮害 要因을 理念對立 強大國 利害등과 같은 構造的 原因에서 찾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濟州道 敎員들의 경우〈表 27〉과〈表 28〉에서 알 수 있듯이 全國調查에 있어서 고학력 집단의 반응과 그 분포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는 批判的 眼目과 分析的 視角을 갖고 냉철하게 分斷問題를 認識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表 28. 統一沮害 要因 (學歷別 比較: 全國反應)

순위	학력		중		졸	
	대 학 재 학 이 상					
1 순 위	이념대립	54.4 %	이념대립	32.8 %		
	강대국 이해	13.4 %	북한 지도층의 이해	27.8 %		
2 순 위	상호불신	26.9 %	상호불신	23.3 %		
	강대국 이해	23.6 %	북한 지도층의 이해	16.4 %		
3 순 위	강대국 이해	23.6 %	강대국 이해	21.1 %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	27.8 %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	16.6 %		

마. 統一과 友邦關係

統一과 關聯하여 美國과 日本의 役割에 대한 敎員들의 意識 構造를 把握하여 보았다. 〈表 2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駐韓美軍에 대해서는 “우리의 自主國防能力이 갖추어 질때까지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應答자가 49.6% (41.1%) 로서 가장 많고, “북한의 남침위험이 있는 한 계속있어야 한다.”는 應답이 30.9% (24.4 %)이며 “統一이 될때까지”라는 應답은 16.4% (30.7%) 임에 반하여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로 철수를 원하는 敎員은 3.1% (3.8%) 에 불과 하였다. 따라서 敎員들은 北韓의 軍事적 위협이 있는 한 민족 자주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써서라도 전쟁억제를 해야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表 29. 駐韓美軍의 撤軍 時期

○ 주한 미군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통일 될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	304(16.4) *	779(30.7)
(2)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있어야 한다	920(49.6) *	1,043(41.1)
(3)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는한 계속 있어야 한다	573(30.9) *	618(24.4)
(4) 어떠한 빠른 시일내에 철수해야 한다	53(2.9) *	82(3.2)
(5) 당장 나가야 한다	4(0.2) *	14(0.6)
합 계	1,854(100) *	2,536(100)
무 응 답	18	* 32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 濟州道 教員들은 全國의 추세와는 대조적인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全國調査에 依하면 대다수 韓國 國民들은 北韓이 남침하는 급박한 事態에서도 日本의 군사원조를 받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즉, “어떠한 지원도 받아서는 안된다”가 30.7%, “물자 지원만 받는 것이 좋다”가 38.0%로서 68.7%가 직접적 군사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濟州道の 教員들은(表 3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 19.2%와 후자 30.6%를 합한 49.8%만이 군사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日本政府의 결정에 따라서는 (1), (2) 문항의 應答을 添加하여 43.4%가 군사지원을 받아서라도 北韓의 남침을 격퇴해야 한다는 다분히 現實的인 意識構造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濟州道の 지리적 여건에 따라 日本 觀光客의 빈번한 왕래, 本道 출신 재일 동포의 各種 支援에 影響을 받아 반일 감정이 퇴색된 경향으로 볼 수도 있으며, 過去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진취적 의면의 반영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表 30. 韓日軍事 協力에 對한 見解

○ 만일 북한이 다시 남침하는 경우 일본의 군사협력을 받는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본 자위대 (육·해·공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265(14.4) * 646(25.7)
(2) 일본 자위대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137(7.4) * 141(5.6)
(3) 병력지원은 제외하고 군수물자의 지원만 받는 것이 좋다	563(30.6) * 955(38.0)
(4) 어떠한 지원도 받아서는 안된다	353(19.2) * 771(30.7)
(5) 일본정부 자체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397(21.6)
(6) 기 타	127(6.9)
합 계	1,842(100) * 2,513(100)
무 응 답	30 * 55

IV. 結論 : 要約 및 提言

1. 要 約

本 調査研究는 南北分斷 41年으로 不惑의 年輪을 쌓아 가고 있는 韓半島의 狀況에 입 각하여 濟州道內 初·中·高 教育의 統一意識構造를 調査·分析함으로써 統一論議의 活性化에 寄與할 目的으로 進行되었다.

南北間의 平和統一 成就에 關한 論議는 해야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자료와 매체를 通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국민은 現實에 安住하여 分斷과 對決을 習慣化 하는데 一助 하고 있으며, 이는 國民적 無關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고 肯定的 側面에서 統一論議에 積極的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은 이 時代를 사는 우리 모두의 엄 숙한 責任과 召命이기도 하며, 知識人의 범주에 포함되는 우리 教員들의 責務인 것이기 도 하다.

本 調査研究의 方法은 全國民의 統一意識構造와 比較하기 위하여 全國民 대상의 設問 內容을 주로 인용하여 作成하고 全道 各 地域에 소재하는 各級 學校 教員(初·中·高) 에게 配付, 回收하여 그 結果를 分析·評價하였다.

29個 問項이 수록된 設問紙 配付數量은 2010 枚였으나 回收된 設問紙는 1905 枚, 이 中에서 全問項에 反應하지 아니한 33 枚를 除外하여 1872 枚를 實際分析 對象으로 하였다.

評價·分析은 배경변인별(所屬學校, 年令, 學歷, 教職, 經歷, 宗教, 教科目)로 29 個 問項과 對比하여야 하지만, 本道 教員全體의 反應結果를 全國 추세와 比較하는데에 中 點을 두었기 때문에 이 統計處理(백분율, 平均차이검증, 變량분석, 순위별분포, T와 F 검증 등등)는 필자가 보관하고 필요한 部分에서만 背景변인별 수치를 내용과 관련지어 선별적으로 提示했음을 밝혀 둔다.

以下에서 中點論議된 項目을 要約해 보기로 한다.

가. 戰爭 可能性

濟州道の 教員은 戰爭再發에 대하여 같은 우려를 表示하고 있다. 1986 年度 현재기준 으로 65.8%, 2000 年에는 43.3%가 戰爭可能性을 접치고 있으며, 應答者의 34%는 戰 爭可能性에 對한 부정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戰爭이 일어

났을 때의 態度에 대해서는 47.5%가 上級部署의 指示에 따르겠다는 의견이고 軍입대 15.1%, 戰勢檢討 24.8% 등이다. 또한 戰爭과 直接 關聯되는 南北軍事力 比較에서는 “北韓이 우세하다.”에 82.9%가 反應함으로써 우리의 對備策이 必要함을 느끼고 있다.

나. 對北韓 認識

濟州道 教員들은 全國傾向과 비슷하게 “北韓共產主義는 好戰的이고 잔인한 獨裁集團”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住民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다. 즉 北韓住民과의 對話에서의 느낌은 62.3%가 “외국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응하여 강한 동족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北韓이 다른 나라와 國際競技를 치루는 경우에도 72.6%의 교원이 北韓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 南北 對話

濟州道の 教員들은 現在 南北間에 계류되고 있는 會議에 대하여 기대하는 편에 속하고 있다. 즉 赤十字會談에는 71.8%, 經濟會談에는 62.4%, 體育會談에는 65.5%가 期待하고 있으며, 政治性을 띠고 있는 國會會談에 42.3% 最高當局者會談 成就에 41.4%만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은 北韓當局의 好戰性和 연계되는 의식으로 보이며 그들의 戰術戰略에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인다. 이 傾向은 “'88 올림픽에 北韓이 參加할 것이냐”는 물음에 54.1%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연결되고 있다.

라. 統一 方案

南北韓 統一方案 선호에 있어 濟州道の 教員들은 우리 정부에서 提示·推進되고 있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어 82.6%가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中立化方案, 주변 강대국과 UN에의 의존方案등에도 17.4%가 응답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統一의 展望

濟州道 教員들 統一時期 豫測에 있어 全國傾向과 비슷하게 10年内의 可能性에는 6.7%만 반응하고 앞으로 50年後 부터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데에 41.5% 무관심 응답을

(모르겠다)이 24.9%를 차지하고 있다. 統一에의 기대를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다.

또 統一이 된다해도 절대적인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즉 自由民主主義體制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통일을 영원하는 응답율이 81.5%나 되며, 自由民主主義體制로 統一이 안된다면 차라리 分斷狀態를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이 14.9%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價値가 統一의 目標價値보다 더 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統一勢力의 평가에 있어서 韓國側이 더 적극적이라고 반응하고 있으나 일부교원은 우리측 統一勢力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敎員들은 統一沮害要因을 드는데 있어서 全國의 高學歷 水準과 같이 理念對立, 強大國 利害關係 北韓指導層의 利害關係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또 濟州道の 敎員들은 北韓의 軍事的 위협이 있는한 駐韓美軍의 계속 주둔을 바라고 있으며, 日本軍事力의 수용에 있어서도 北韓의 南侵은 日本에 의존해서라도 막아져야 한다고 現實的이고 진취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본다.

2. 提 言

이상의 結果를 토대로 하여 統一論議 活性化를 위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敎員들의 심각한 戰爭可能性 우려에서 表示되었드시 南北韓間의 統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平和的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태세나 방위력이 결코 허술해서는 아니될 것임으로 우리 국민이 北韓보다 軍事力에서 우세하다고 느낌을 갖도록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側이 提議한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 締結을 推進·實現시켜 韓半島에 平和의 制度保障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로 統一에 대한 無關心의 해소책의 강구이다. 本 研究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統一과 南北對話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過去에 큰 기대를 가졌다가 失望했고 北韓의 實相에 대한 現實的인 理解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統一과 對話에 대하여 현명한 태도와 판단을 갖게 하려면 무감각을 지양하고 보다 이성적인 관심과 태도가 요망된다. 이것은 일정한 수준의 關心과 지지 또는 批判이 있어야만 國民的 合意의 基礎가 튼튼해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셋째로 討論과 參與의 분위기 造成이 바람직하다. 統一意識에서 구심점을 찾고 그것을 국민적 合意로 表出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토론과 참여가 필요하다. 同意에 의한 決

定이 곧 民主主義의 基本이며 이것이 實現될 때 국민들은 自發的으로 지지와 희생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나 統一政策과 對話政策을 決定하고 執行하는 過程에서는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意見을 開陳할 必要가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 敎員들도 統一問題에 부단한 關心을 갖고 平和統一努力에 스스로 참가하고, 統一沮害要因이 해소에도 앞장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대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單 行 本)

1. 柳錫烈. 남북한관계론. 정음사, 1985.
2. 閔丙天. 民族統一論. 고려원, 1985.
3. 金漢教外. 韓半島의 統一展望, — 可能性과 限界 —.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6.
4. 李基鐸.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 — 理論과 實際 —. 嘉南社, 1984.
5. 李基鐸. 韓半島와 國際政治, — 理論과 實際 —. 嘉南社, 1984.
6. 趙淳昇. 한국분단사. 形成社, 1983.
7. 李洪九外.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 博英社, 1984.
8. 閔丙天外. 分斷現實과 統一運動. 民衆社, 1984.
9. 李泳禧. 分斷을 넘어서. 한길사, 1984.
10. 김병오.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도서출판 한울, 1985.
11. 梁泰鎮·李瑞行. 分斷時代의 北韓狀況. 大旺社, 1983.
12. 李榮一. 分斷時代의 統一論理. 전예원, 1984.
13. 李效再.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14. 변형운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15. 김정원. 分斷韓國史. 동녘, 1985.
16. 梁好民外. 民族統一論의 展開. 形成社, 1982.
17. 金學俊. 韓國民族主義의 統一論理. 集文堂, 1983.
18. 盧重善編. 民族과 統一 I (資料編). 사계절출판사, 1985.
19. 李茂雄. 安保와 統一政策. 大旺社, 1982.
20. 申正鉉外. 國家安保論. 日新社, 1984.
21.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 80年代의 挑戰 —. 考試研究社, 1980.
22. 金學俊. 強大國 關係와 韓半島. 乙酉文化社, 1983.
23.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편.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 민중사, 1985.
24. 강석호 외. 80년대의 주변정세 —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 거름, 1985.
25. 韓國共產圈 研究協議會, 北韓의 오늘과 내일. 法文社, 1982.
26. 金甲喆. 強大國과 韓半島 — 四強體制와 韓國統一 問題 —. 日新社, 1974.

27. 高性俊·金恒元, 政治이데올로기와 統一, 濟州大學校 出版部, 1986.
28. 國民倫理學會編, (改訂新版)國民倫理, 螢雪出版社, 1984.
29. 金泰吉外, 國民倫理原論, 博英社, 1983.
30. 國民倫理編輯委員會 編著, 新國民倫理 I, II, 大旺社, 1981.
31. 共產圈 研究室編, 韓國統一과 體系再統合,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32. 共產圈 研究室編, 韓國統一과 國際情勢,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33. 共產圈 研究室編, 韓國統一의 理論的 基礎,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34. 金正源外, 韓國現代史의 재조명, 돌베개, 1982.
35. 宋建鎬·姜萬吉編, 韓國民族主義論, 創作과 批評社, 1982.
36. 宋建鎬·姜萬吉編, 韓國民族主義論 II, 創作과 批評社, 1983.
37. 黃性模, 民族·外勢·統一의 변증법, 大邦出版社, 1983.
38. 金學俊, 反外勢의 統一論理, 形成社, 1983.
39. 宋建鎬外, 解放前後史의 認識, 한길사, 1980.
40. 경희대학교 高鳳翹집위원회편, 분단시대의 한국사 — 민주공화국 40년 —, 도서출판 중원문화, 1985.
41. 徐海吉, 共產主義 理論 批判과 平和統一의 이데올로기, 文音社, 1983.
42. 閔丙天, 北韓共產主義, 大旺社, 1983.
43. Chong-Shik Chung & Grhb-Chol Kim, North Korean Communism —A Camparatine Analiysis Humane Love(IN-GNA-SA-RANG), 1983.
4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北韓 統治 이데올로기 研究 —그 現況과 方向—, 1984.
45.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南北對話 白書, 1983.
46. 金相俊, 國際政治 理論 I, II, 三英社, 1980-1982.
47. 吳永祿, 國際政治의 主要概念, 法文社, 1984.
48. 趙在權, 國際政治學, 法文社, 1983.
49. 朴慶緒, 國際政治 經濟論, 法文社, 1985.
50. 李相禹, 國際關係 理論, — 國家間의 葛藤原因과 秩序維持 —, 博英社, 1982.
51. 朴尙植, 國際政治學, 集文堂, 1985.
52. J. E. 도거티, R. L. 콕츠그라츠, Jr. 共著, 崔昌潤譯, 國際政治論 — 理論과 接近法 —, 博英社, 1984.

53. 北韓研究所. 北韓政治論, 1979.
54. 金雲泰外. 韓國政治論. 博英社, 1984.
55.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1985.
56. 國土統一院. 民族和合 民主統一論 I, II, III, IV, 1982~1985.
57. _____. 北韓概要. 1984.
58.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59. 張起雄. 統一은 왜 안되고 있는가. (統一文庫 1) 民統中央協議會, 1981.
60. 姜光植. 民族和合 民主統一의 길(統一文庫 6). 民統中央協議會, 1982.
61. 宋榮大. 分斷國家와 統一(統一文庫 8). 民統中央協議會, 1982.
62. 梁興模. 우리가 지향하는 統一祖國(統一文庫 9). 民統中央協議會, 1983.
63. 朴慶錫. 歷史에서 본 民族統一(統一文庫10). 民統中央協議會, 1983.
64. 濟州大學校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硏究會. 이데올로기 硏究論叢 第3輯, 1985.
65. 정대철. 북한의 통일전략 연구. 백산서당, 1986.
66. 大學이데올로기 批判教育 教授 協議會編, 現代思潮와 韓國社會. 螢雪出版社, 1986.
67. 姜光植外. 統一文化 創造를 위한 硏究. 韓國精神 文化硏究院, 1984.
68. 안병준. 국제환경의 변화와 민족통일. 정음사, 1986.
69. 安象永. 現代共產主義硏究, 한길사, 1984.
70. 한국정신문화硏究원編, 北韓의 實相. 고려원, 1986.
71. 朴文甲外, 南北韓 比較論. 文佑社, 1986.
72. 박현채외, 해방 40년의 재인식 I, II, 돌베개, 1985~1986.
73. 具永綠外, 南北韓 政治統合과 國際關係, 慶南大 極東問題硏究所, 1986.

(論 文)

1. 申命淳. “統一戰略 研究의 分析”, 韓國精神 文化研究院. 研究論叢 85-12, 1985. 6.
2. 李相禹. “南北韓關係에 대한 새 照明: 統一理念 體系定立의 必要性”. 金俊燁 博士 華甲記念. 「韓國과 亞細亞」特輯, 198 .
3. 安秉永. “南北韓 統一問題와 北韓의 現況”, 濟州大學校 統一安保 研究所. 統一問題學術 세미나, 1982. 6 .
4. 金용찬외. “통일문제 다이아로그 발표요지 논집 I”, 제주대학교 통일문제연구회, 1983. 11.
5. 宋尙舜. “南北韓 平和統一 方案의 比較分析”, 國民倫理學會 濟州支會 統一政策學術會議, 1984. 11.
6. 高性俊. “韓半島 周邊環境과 北韓의 內的變化가 統一에 미치는 영향”. 國民倫理學會 濟州支會 統一政策 學術會議, 1984. 11.
7. 康根亨.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과 統一問題”, 國民倫理學會 濟州支會 統一政策學術會議, 1984. 11.
8. 姜偉인. “대화시대의 통일안보 교육의 방향 —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 國民倫理學會 濟州支會 夏季세미나, 1985. 6 .
9. 현길언. “분단극복과 민족문화”,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1985. 5 .
10. 정세현. “통일문화 창조의 방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1985. 5 .
11. 이홍구. “이데올로기 시대와 민족통일”,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1986. 6 .
12. 부대성. “남북경제 회담의 정치적 제약요인 분석”,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1986. 6 .
13. 민병천. “국제관계와 통일문제”. 제주신문사 통일문제 특별강연회, 1986. 6 .
14. 양영식. “남북대화와 당면과제”. 제주신문사 통일문제 특별강연회, 1986. 6 .
15. 양성철. “북한의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청년회 전문가 초청 통일문제 연수회, 1986. 7 .
16. 서극성. “북한의 최근 동향과 남북대화 현황”.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청년회 전문가 초청 통일문제연수회, 1986. 7 .

17. 민병천. “南北關係 發展의 Model 研究 계간 「統一政策」 1 권 1 호 「平和統一研究所」, 1975.6.
18. 成耆哲. “二個의 獨逸과 國際法”, 江原大學校 「統一問題研究」第 3 輯, 1979.
19. 金東柱. “離散家族의 高齡化가 統一安保 意識에 미치는 影響”, 江原大學校 「統一問題研究」第 3 輯, 1979.
20. 李榮一. “南北對話 打開方法論 研究”.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1979.
21. 李昶雨. “美·日·中共 關係와 韓半島 一 日·中共 平和共存 條約 締結을 中心으로 —”.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1979.
22. 朴炳五. “南北韓의 統一政策에 關한 比較研究”. 東國大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76.
23. 趙東植. “統一理念의 研究”. 東國大 大學院 政外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1977.
24. 朴容九. “北韓의 南北對話 方式에 關한 研究, — 北韓側의 對話戰術과 關聯하여 —”. 東國大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0.
25. 徐成雨. “北韓의 統一政策에 關한 研究”. 東國大 大學院 政治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1.
26. 嚴燮馴. “南北韓의 平和統一 政策에 關한 比較研究”. 東國大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2.
27. 車光鍾. “南北韓 統一政策의 比較研究”. 檀國大 大學院 行政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2.
28. 姜大權. “南北韓 統一政策에 關한 比較研究”. 檀國大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3.
29. 金致洪. “濟州道 中·高等學生의 統一安保 意識에 關한 調查研究”. 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3.
30. 李光日. “蘇聯의 極東軍事力 增強과 韓國의 安保”. 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4.
31. 金東軾. “韓國民族 主義와 統一의 課題”. 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5.
32. 姜德富. “濟州道 中學生의 價值觀에 關한 調查研究”. 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6.
33. 李相禹. “韓國人의 統一意識 變化추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年度 통일문제 세미나, 1985.

설문지

제주교육발전에 진력하고 계신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수고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의 통일의식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한국인의 통일의식 변화추세와 상호 비교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그 내용은 모두 숫자로 통계처리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생각 또는 느낌을 해당란에 ○표 또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진지한 응답이 본 연구 진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986년 9월 25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고 시 흥 드림

(주소 : 59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1-46 제주도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I. 응답자 배경 설문

- | | |
|----------------------------|-----------------------|
| 1. 소속학교 : ① 초 ② 중 ③ 고 | ⑤ 25년 이내 ⑥ 30년 이내 |
| 2. 성 별 : ① 남 ② 여 | ⑦ 30년 이상 |
| 3. 연 령 : ① 20대 ② 30대 | 7. 직 위 : ① 교 사 ② 주임교사 |
| ③ 40대 ④ 50대 | ③ 교 감 ④ 교 장 |
| ⑤ 60대 | 8. 종 교 : ① 불 교 ② 천주교 |
| 4. 거주지역 : ① 시 ② 읍 ③ 면 | ③ 기독교 ④ 기타종교 |
| 5. 학 력 : ① 고 졸 ② 초대졸 | ⑤ 무종교 |
| ③ 대학졸 ④ 대학원졸 | 9. 담당과목 : () |
| ⑤ 기 타 | 10. 소지자격증과목 : () |
| 6. 교직경력 :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 11. 대학전공과목 : () |
| ③ 15년 이내 ④ 20년 이내 | |

II. 내용 설 문

1. 남북한 전쟁 가능성

가.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단히 많다 ② 대체로 많다
- ③ 반반이다 ④ 대체로 적다
- ⑤ 대단히 적다 ⑥ 기 타

나. 2000년에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단히 많다 ② 대체로 많다
- ③ 반반이다 ④ 대체로 적다
- ⑤ 대단히 적다 ⑥ 기 타

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군에 입대하여 싸우겠다.
- ②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겠다.
- ③ 전세를 보아가며 행동하겠다.
- ④ 해외로 이주하겠다.
- ⑤ 상급부서의 지시에 따르겠다.
- ⑥ 기타

2. 대북한 인식

가. 선생님께서는 “북한, 북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때 어떠한 연상이 떠오르십니까? 3 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예시 : 이상사회, 공산사회, 평등사회, 호전성, 잔인성, 강제성, 체제경직성, 독재집단, 6·25남침집단, 가난한나라, 경제적빈곤, 독재지배사회, 이질화, 우리동포동족, 빼앗긴 지역 등등으로 표기 가능)

나. 해방이후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북한동포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떠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 ① 거의 외국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 ② 대체로 외국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 ③ 다르긴 하겠지만 외국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는 같지는 않을 것이다.
- ④ 대체로 우리 이웃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 ⑤ 거의 우리 이웃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다. 북한이 참가한 국제경기에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입니까?

- ① 다른나라가 이기는 것보다 북한이 이기는 것이 좋겠다.
- ② 북한이 이기는 것보다 다른나라가 이기는 것이 좋겠다.

3.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① 크게 기대한다.
- ② 대체로 기대한다.
- ③ 조금 기대한다.
- ④ 대체로 기대하지 않는다.
-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4. 1984년 9월에 우리는 북한이 제공한 수재물자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① 잘 받아드렸다. ③ 기 타
- ② 거절했어야 했다.

5. 남북한의 경제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① 크게 기대한다.
- ② 조금 기대한다.
- ③ 대체로 기대한다.
- ④ 대체로 기대하지 않는다.
-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6. 남북한의 체육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① 크게 기대한다.
- ② 조금 기대한다.
- ③ 대체로 기대한다.
- ④ 대체로 기대하지 않는다.
-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7. 남북한의 국회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 ① 크게 기대한다.
- ② 조금 기대한다.
- ③ 대체로 기대한다.
- ④ 대체로 기대하지 않는다.
-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8. 남북한 최고 당국자 회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만일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가. ① 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③ 기타

- 나. ① 1년후 ② 3년후 ③ 5년후
④ 10년후 ⑤ 기타(년)

9. '88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이때 북한이 참가여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① 참가할 것이다.
- ② 불참할 것이다.
- ③ 주변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 ④ 기타()

10. 선생님께서는 언제쯤 통일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 ① 5년내에 ② 10년후 ③ 20년후

- ④ 30년후 ⑤ 50년후 ⑥ 100년후

- ⑦ 영원히 불가능 ⑧ 기타

11. 선생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빨리 통일을 하고 볼 일이다.
- ② 이념과 체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 ③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④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안된다면 차라리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낫다.
- ⑤ 기타()

12. 지금까지 남북한 어느쪽이 더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와 미래에는 어떠하고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공란에 ○표)

내 용	과거	현재	미래
① 한국측이 더 적극적			
② 북한측이 더 적극적			
③ 양측 모두 적극적			
④ 양측 모두 소극적			
⑤ 모르겠다.			

13. 다음 항목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3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이념대립 ()
- ② 북한지도층의 이해관계 ()
- ③ 상호불신 ()
- ④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 ()
- ⑤ 남한지도층의 이해관계
- ⑥ 군비경쟁 ()
- ⑦ 경제력 격차 ()
- ⑧ 남·북한지도층의 이해관계 ()

⑨ 기 타 ()

14. 주한 미군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통일이 될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
- ②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이 갖추어질때 까지만 있어야 한다.
- ③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는 한 계속 있어야 한다.
- ④ 어떠한 빠른 시일내에 철수해야 한다.
- ⑤ 당장 철수해야 한다.

15. 만일 북한이 다시 남침하는 경우 일본의 군사협력을 받는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일본자위대(육·해·공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② 일본자위대(해·공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③ 병력지원은 제외하고 군수물자의 지원만 받는 것이 좋다.
- ④ 어떠한 지원도 받아서는 안된다.
- ⑤ 일본정부 자체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 ⑥ 기 타

16. 통일촉진의 한 방안으로 주변 4강국(미·일·소·중)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교차승인을 해야 한다.
- ② 교차승인을 반대한다.
- ③ 기 타

17.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선생님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 ① 북한이 훨씬 우세하다.
- ② 북한이 약간 우세하다.
- ③ 남북한이 대등하다.
- ④ 남한이 약간 우세하다.
- ⑤ 남한이 훨씬 우세하다.

18. 통일성취를 위한 각종의 방안이 남북한 또는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통일방안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 ①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 ②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방안
- ③ 중립화 방안
- ④ 주변강대국의 합의
- ⑤ 유엔을 통한 통일방안
- ⑥ 기 타()

Abstract

A Study on the Cheju Grade School Teachers' Consciousness
Toward the National Unification

Koh, Shi-Wong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ung-June

1. Summary

This study has been made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argument on the national unification with an analysis of survey material taken from the grade school teachers in Cheju upon the consciousness toward the unification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forty-one years of political division has added to the cycle of four decades.

The argument how to achieve a peaceful unification of two Koreas has continued on through a lot of material and media but many people rest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us are accustomed to the division and confrontation as realistic, which is developed into the national indifference. We must break this and guide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rgument for the unification in a positive eye, which is our paramount responsibility and mission and this is an obligation of our teachers belonging to the intellectuals.

As a method of study, papers quoting the contents of enquiries given to the nationwide circle were distributed to all the grade school teachers in Cheju, collected, analyzed and then their results were assessed in order to compare that data with the nation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for the unification. The distributed amount of enquiries containing 29 questions numbered 2,010 sheets, but the papers collected were 1,905, of which for a real analyzing objects 1,872 sheets were used, discarding 33 sheets that didn't respond to all questions.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analysis and the assessment should be made in comparison with 29 item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ndividual background (say, school-level, age, education, the length of teaching career, religion and teaching subject), but it is made clear that an emphasis was placed upon the comparison of the response-results of all the teachers with the data from the nationwide survey, this statistical treatment (percentage, test of the average difference, variant-quantitative analysis, distribution, in that order, T- and F-test, and so on) is kept by the author and thus only the needed data are selectively chosen in relation with the contents in numerical valu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background.

Following is a summary of items intensively argued.

1) As to the item of another probable war: The teachers are much anxious about probable war. At the time of the year 1986, 65.8 % of the teachers see another war will break out whereas 43.3 % respond it is probable even in the year 2000. 24% of all show a negative attitude to the probable war.

As to the attitude when the war will break out, 47.5 % respond that they would follow the directions from the upper echelon, 15.1 % show they would go to war as a soldier, 24.8 % would watch on the war situation.

In the comparison of military power between two Koreas, which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warfare, 82.9 % see the North is much stronger than the South, and therefore they feel it necessary of their preparedness.

2) As to the level of cognizance toward North Korea: The teachers recognize that similarly to the nationwide tendency, the northern communist society is warlike and cruel dictatorship. But they seem to have the opposite attitude toward the northern people. That is, in their feeling about the dialogue, 62.3 % show their response that they don't feel them like foreigners, but possess the consciousness that the two are of the same brethren.

About the international sports games, at which North Korean players compete, 72.6 % of the teachers want the north will win.

3) About the South-North dialogue: They have a tendency of promising about the pending talks between two Koreas. In other words, 71.8 % welcome the Red Cross talks, 62.4 % in the economic talks, 65.5 % in the sports talks, 42.3 % in the political talks inter-parliamentary dialogue, and only 41.4% support the supreme leader's tlks. Their consciousness seems to be related with the warlike by the north regime and with their expression of will not to be dragged into their strategy and tactics.

This tendency is shown in the negative response of 54.1 % as to the question if the north should participate in the 1988 Olympic Games.

4) A device for the unification: In the preference fo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most teachers support the policy that the two people must be harmonized and the unification must be realized in a democratic way as declared and so far proceeded by the Government, with the 82.6 % affirmative response.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at 17.4% support a scheme of the unification making two Koreas neutralized, a strategy for the unification assisted by surrounding Big Powers or the U.N. and so on.

5) Prospects for the Unification: Only 6.7 % teachers see the unification will be achieved within 10 years, which is similar to that shown in the nationwide data, while 41.5 % show their response that the realization of unification would be impossible after 50 years on, with the 24.9 % unconcerned(Responded as "don't know"). They seem like giving up any hope for the unification. The majority want an absolute precondition in case the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Say, 81.5% respond that it must be realized on the condition under a liberal-democratic system. If not, 14.9 % rather prefer the present division to a unified Korea. This shows that in their consciousness the liberal-democratic value is much stronger than the value of aspiration for the unification.

In the assessment of an effort for the unification, they see the South has taken much more positive policy than the North, but we must listen to their opin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much more strenuous exertion.

Pointing out some negative factors for the unification, they respond in the order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the interest among the Great Powers, and the concern by the northern leaders, as shown by the nationwide intellectuals.

So long as the North Korea's threat of military forces exists, most teachers want a continuing presence of American forces in Korea and possess a realistic and progressive idea that the North invasion into the South must be checked in spite of our dependence upon the Japanese as to the question if we must accept the Japanese forces in need.

2.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bove, several suggestions are given in order to activate the argument for the unification.

First, as shown by the teachers who worry a probable wa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must be peacefully realized at all. If this can be guaranteed, we must be substantially prepared ourselves for confidence so that all the people can have a feeling of our superiority to the north in the military forces, as our attitude toward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defence system should not be left alone. In addition, we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peace guaranteed with the conclusion of "Provisional Settlement as a basic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Secondly, we must obliterate the indifferent consciousness to the unification. As shown in this study, many people have an indifferent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and the dialogue. This seems to have come from such a high expectation in the past resulting in a complete disappointment and from the real knowledge of a true northern society. In order that they should have a discreet attitude and judgment about the unification and the dialogue, this indifference must be obliterated and thus turned into a reasonable attitude. That's because any concern, support and criticism available at a certain pure level would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consensus.

Thirdly, it is desired that an atmosphere for free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fostered. A wide scope of discussion and participant attitude are urgently needed to look for a centripetal points from the consciousness to the unification and thereby to sublimate them into the national consensus.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ensus would make a basis of democracy, in which case the people are willing to spontaneously support and sacrifice themselves for that.

In particular, in the drafting and executive process of such a policy, it is necessary that all circles of life must participate and express their their opinions. In this connection, the teachers must develop their capacity that can execute a leading role in a line of our willingness, taking a proper step toward a pioneering role to be concerned about the issue for the unification, to spontaneously participate in an effort to achieve a peaceful unification, and then to obliterate any impeding factors for the unification.